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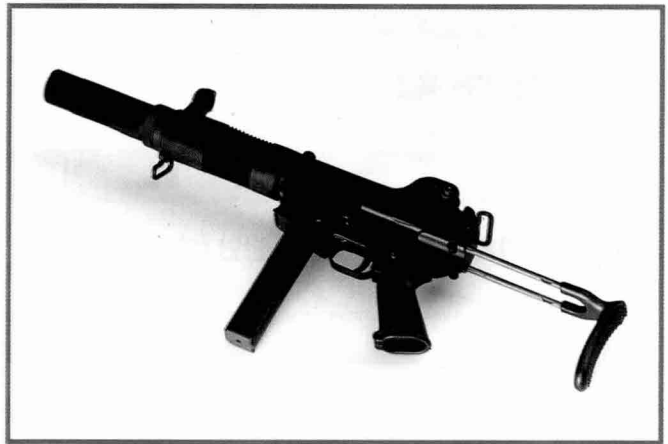
대우통신, 한국형 9밀리 소음기관단총 개발

K계열 한국독자모델로 경량화 및 운용 편의성 돋보여...

대우 통신은 국방품질관리소와 공동으로 한국형 "9mm 소음기관단총"을 개발, 금년 하반기부터 전력화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98년 4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2년 8개월에 걸쳐 개발한 9mm 소음기관단총은 발사소음을 최소화하여 한국적 운용환경에 적합한 전투 환경하에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특수목적 화기로 지금까지 전량 수입에 의존해 왔었다.

이번에 새로 개발된 소음기관단총은 순수 국내기술로 기존의 K1A, K2와 같이 K계열의 한국 고유독자모델로서 기존의 수입품에 비하여 저렴한 가격, 우수한 정비성, 한국인의 체형에 맞는 경량화 및 운용 편의성과 함께 약조건하에서 시험결과 기존 수입품에 비하여 매우 우수한 신뢰성을 확보한 것이 장점이다.



특히 소음측정 시험 및 환경시험을 지원했던 국방과학연구소 관계자와 운용시험을 주관한 군 관계자는 "혹한기, 혹서기, 장마기 등 사계절이 뚜렷한 한국적 기후특성을 고려할

때 특수목적 화기의 사용조건인 고/저온 시험, 진흙탕물 시험 등 환경시험 결과 수입품에 비하여 우수한 신뢰성을 보임으로써 우리 군의 전천후 운용 환경에 적합한 화기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품관소 관계자는 "개발에 따른 외화 대체효과 및 군 예산절감 효과 외에 기존 K계열 소구경화기의 부품 공용화로 기 보급된 부수 장비들의 활용이 가능하고, 기존 수입품 부품공급지연으로 인한 유지/정비성 문제점 등이 해결되어 전력 향상 뿐만 아니라, 한국 고유 독자모델로서 국외에 수출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특징 - 제원

제원 및 성능	개발 장비	군원 장비 (독일/MP5SD6)	비고
구경	9×19mm	9×19mm	
작동방식	Simple Blowback	Delayed Blowback	
발사방법	단발/점사/연발	단발/연발/점사	
총열길이(mm)	134	146	
강선	6조우선	6조우선	
조준반경(mm)	310	336	
길이 (mm)	삽입시	610	신축식 개머리
	개방시	788	
무게 (kg)	3.4	3.6	빈탄알집 포함
유효사거리(m)	135	130	
총구속도(m/sec)	295±20	(285)	(측정값)
발사속도(발/분)	1,150±100	850±100	
소음크기(dB)	120미만	120미만	



美 정부, 한국에 SLAM-ER 판매 승인

항속거리 278km의 장거리 정밀 순항미사일

지난 8월 13일 보잉사 Doug Kennett 부사장은 美 정부가 한국에 대해 보잉사의 장거리 정밀 지상 타격용 순항미사일인 SLAM-ER의 판매를 승인했으며, 이로써 한국은 SLAM-ER 순항 미사일의 첫번째 국외 판매 대상국이 되었다고 밝혔다.

보잉사가 美 해군을 위해 생산하는 이 미사일은 위성항법 시스템(GPS)자료를 활용할 뿐만 아니라 뛰어난 데이터 연동 기능과 적외선 탐지기로 원거리에 위치한 지상 및 해상의 모든 목표물에 정밀 공격을 가할 수 있다. 이 미사일의 항속거리는 150nm(약 278km)를 상회한다.

SLAM-ER은 비행 중일 때 위성항법(GPS)프로세서가 미사일의 INS에 정보를 업데이트 함으로써 미사일의 적외선 영상 추적기가 표적을 정확하게 추적하게 된다. SLAM-ER은 시험을 통해 입증된 Man-in-the-Loop 방식을 채용하여, 미사일의 최종 비행 순간까지도 조종사가 타격 지점을 정확하게 수정할 수 있게 된다.

SLAM-ER의 Man-in-the-Loop 제어 시스템은 다른 형식의 Stand-off Land Attack Missile에 비해 몇 가지 전술적으로 뛰어난 장점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타격 전에 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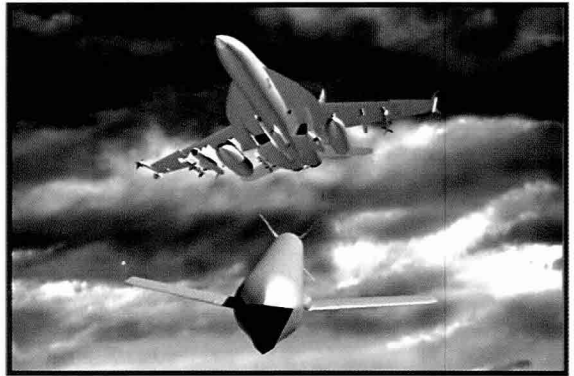


표 장면을 실시간으로 살펴봄으로써 표적 식별과 2차적인 피해를 줄일 수 있으며, 원래 표적이 이미 파괴되었을 경우 2차 조준점을 선택할 수 있고, 임무의 성공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다.

SLAM-ER은 고정된 주요 지상 표적 및 항구에 정박 중이거나 향해 중인 함정에 대한 국부공격(Surgical Strike) 능력을 제공한다. 항모 또는 지상 기지를 근거지로 하는 항공기에 탑재되도록 설계되었으며, 함정 발사용으로도 쉽게 개조할 수 있다. SLAM-ER은 150nmi 이상의 안전한 Stand-off Range에서 발사할 수 있다.

서울에어쇼 16개국 132개 업체 참가

F-X 기종 선정 앞두고 치열한 홍보전 전개

오는 10월 15일부터 21일까지 성남 서울 공항에서 개최될 '서울에어쇼 2001' 행사는 8월 16일 현재, 21개의 전시동에 국내 28개 업체, 해외 104개 업체에서 633 부스를 신청하였으며, 행사의 규모와 진행일정이 확정되어 개막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번 '서울에어쇼 2001' 행사는 항공기 생산업체를 비롯하여, 항공 전자 및 항법, 통신, 항공 무장, 방공 무기 생산업체와 지상장비 관련 업체까지 참가하여 무기체계 전반에 관한 다채롭고 풍부한 볼거리를 제공하게 된다.

특히 미국의 보잉, 프랑스의 닷소, 스페인의 CASA, 러시



아의 로스부루제니 등 차세대 전투기 선정 대상 4개 업체 모두가 참가신청을 완료 하였다.

지상에 전시될 항공기들은 F-15E, 라팔, Su-35 등을 비롯하여, 현재 한국 공군에서 운용 중인 항공기와 美 태평양사령부, 美 8군 등에서 운용되고 있는 다수의 군용기가 '서울에어쇼 2001' 행사를 통해 일반에 선보인다.

한편, '서울에어쇼' 행사에서 미국 공군의 곡예 비행팀인 '썬더버드(Thunderbirds)'가 참가하여, F-16 전투기로 세계 정상급 수준의 곡예비행을 선보이게 된다.

뿐만 아니라 지난 '98년 서울 에어쇼에서 웅장한 태극 문양을 그리며 관람객의 환호와 갈채를 받았던 한국공군의 블랙이글팀이 이번 행사에도 참가, 미국의 '썬더버드(Thunderbirds)'와는 또 다른 곡예비행의 진수를 선보일 예정이다.

서울에어쇼 공동 운영 본부장인 배창식 공군 전투발전단장은 "서울에어쇼를 통해 국내 항공산업 분야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기반을 확충하고, 국민적 관심과 성원을 증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미래를 대비하는 한국의 국방비 2001」 발간

적정 국방비 필요의 국민적 공감대 확산에 기여...

국방부 는 미래 불확실한 안보상황과 21세기 전 장환경에 대비하기 위한 2002년도 국방 예산 요구안에 대한 대국민 홍보책자 「미래를 대비하는 한국의 국방비 2001」을 발간하였다.

이 책자는 국가안보와 국방비, 전환기의 안보환경, 미래지향의 신국방 건설, 국방운영의 현실, 2002년도 국방요구 예산 등 5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안보와 경제는 국가경영의 양대 축이며, 국방비는 국가 생존과 번영에 필수 불가결한 요소로서 "전국민의 안보 보험료"인 동시에, 국가안보라는 공공財(공공재)를 생산하는 "투자"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 우리 군은 현존 북한위협과 미래 불특정위협에 동시 대비해야 하는 매우 어렵고도 중요한 시점에 처해 있다. 남북관계는 최근 화해협력의 길을 모색하고 있으나 아직도 군사적 대치상태가 지속되고 있으며, 주변국들은 우리에게 비해 이미 절대 우위의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지속적인 군사혁신을 통해 첨단전력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따라서 국방부는 이러한 유동적인 안보상황에 능동적으로 대비하기 위하여 21세기 "선진 정예국방"을 지향한 "첨단 정보·기술군"육성을 목표로 전력구조의 단계적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군이 지향해 나가고 있는 군사력 건설은 무기체계의 고가화 및 운영 유지비용의 증가 등으로 현재보다 더 많은 국방 예산이 소요될 수 밖에 없지만, 새로운 무기체계를 연구·개발·생산하여 실전에 배치하기까지는 약 10~20년의 선행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미래를 예측하고 미리 투자하지 않으면 전력화 시기를 놓치는 愚(우)를 범하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0년대 중반 이후 국방비 증가율이 억제되어 현재 우리 나라의 국방비 부담률은 국내총생산(GDP)의 2.7%로서 세계 평균 수준(4.1%)에도 크게 못미치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국방비 배분추세가 지속된다면 현존전력의 효율적 관리는 물론 미래 지향의 첨단 군사력 건설계획에 차질을 초래하여 주변국과의 전력 격차가 더욱 확대될 것이 예상된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국방부는 본 책자를 통해 우리의 안보 현실과 중·장기 군사력 발전 방향, 적정 수준의 국방비 배분 필요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